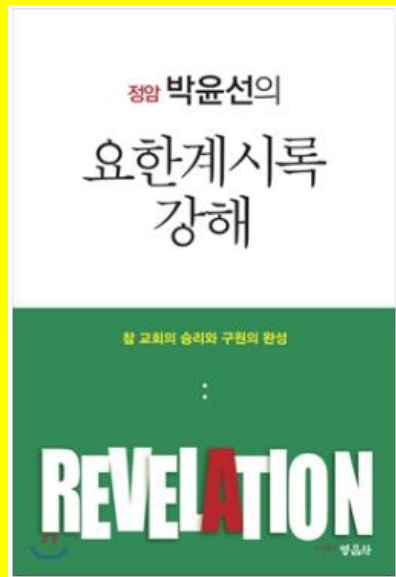


“배도-멸망-구원” 교리의 허구

<시작 멘트>



故 정암 박윤선 목사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많아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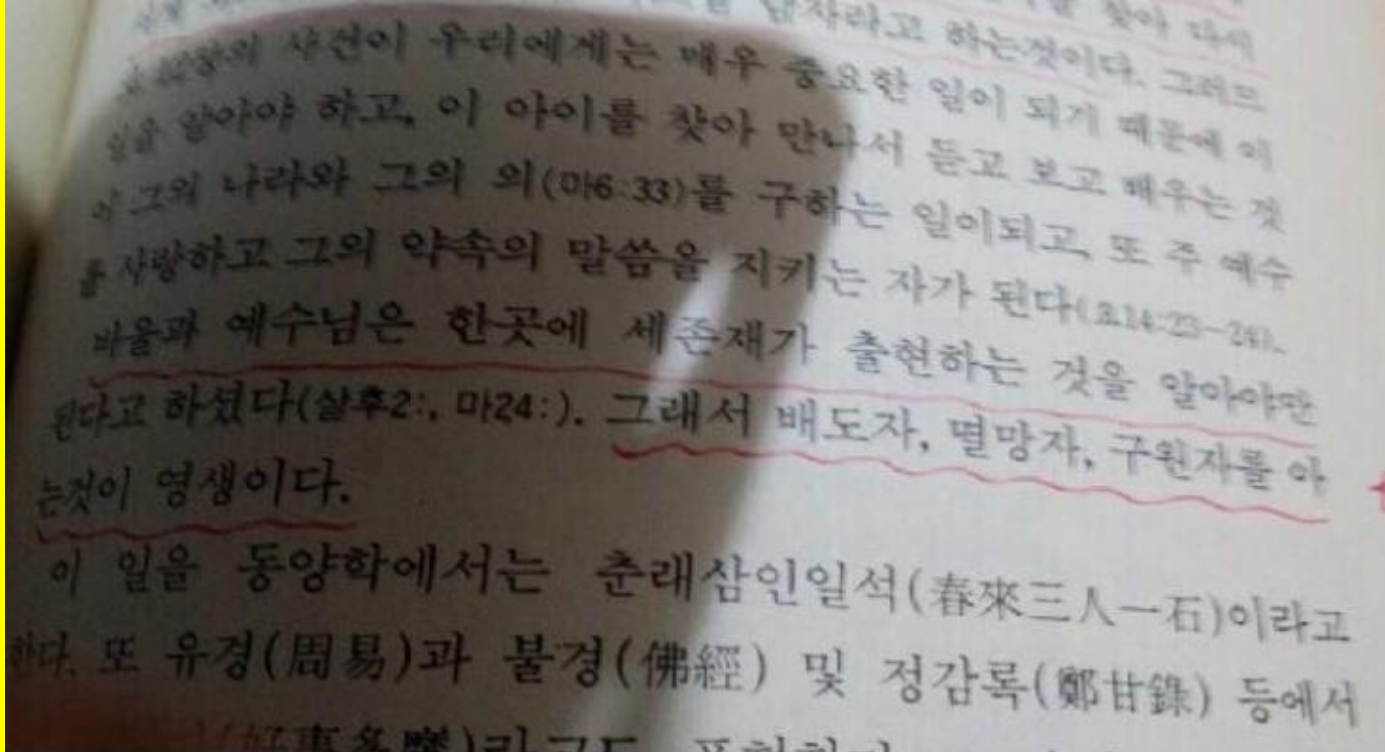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기성교회의 목회자(상담자)라면, 신천지의 배도-멸망-구원 교리(이하 배멸구)가 매우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배멸구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언약을 배도함으로서 멸망되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목자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계시록시대"로서 이만희가 예수님의 영이 임한 마지막 목자이며, 신천지 144,000이 완성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신천지 교리 중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이 주제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의 주장을 크게 분류하자면 <목자택함-언약-배도-멸망-심판-구원-재창조-새언약-부활>의 순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배도자와 멸망자, 구원자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예언과 노정

1. 성경은 아담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보고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편지로서(계2:3)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편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믿고 그 뜻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마7:21-27).
2. 성경을 크게 분류하면 역사와 교훈과 예언으로 기록되었고 성사과정은 목자택함-언약-배도-멸망-심판-구원-재창조-새언약-부활의 순리로 되어있다 (사1:1-2:5).
3. 택한 목자와 선민이 언약을 배도하여 (렘32:31-35) 멸망을 받아 없어지게 되므로 불가불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는 시대마다 있었던 6000년 성경의 역사가 잘 증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새이스라엘, 새목자, 새민족, 새언약이란 말이 있게 되었고 필요했던 것이다 (사65:17, 계6:7:21:).
4. 재창조는 배도한 첫 언약의 장막에서 멸망을 피한 적은 씨로 시작되고 구성이 된다(사1:7-9, 계3:4, 6:6). 배도하므로 이방에게 멸망당한 자들의 영은 죽은 영이요, 멸망을 피한 자들의 영은 산 영이다. 하나님은 이 산 자들의 하나님이며(마22:32), 생명의 양식인 참 진리의 말씀도 이곳 산 자들에게서 나온다 (사55:1-2, 계3:4, 15:2-5, 21:6).

후 비로소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살후2:1-12) 이를 상론하면 먼저 목자택함-언약-배도-멸망-구원-재창조-새언약-부활-영생의 순리로 나타나고 성취된다.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

배도자는 하나님으로 부터 택함 받아 언약한 목자와 민족이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교법을 따르는 것이 배도의 행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이 바로 배도자인 것이다(살후2:1-4호6:7).

멸망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에 침노하여 선민을 이방 교권으로 미혹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여 삼키고 장막까지 무너뜨린 침노자들이다(계13:).

구원자는 하늘 장막이 배도로 이방에게 멸망 받은 후 이방에게 포로된 민족에게 와서 증거의 말씀으로 빼내어 구원하는 자들이다(계17:14, 요5:24-29).

성도는 누구나 이 예언이 성취될때 세가지 사건과 세 존재를 순리적으로 바로 깨달아 믿고 지켜 구원자에게로 가야 산다(요16:14, 마24:45, 계10:).

이만희 생애의 단상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유 열 <첫 장막 7천사>



오 호 & 청지기교육원 7목자



이만희가 목격했다고 증거하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실상인물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천지는 오늘날 마지막으로 실상이 나타났다면
서 아래와 같이

1. 배도자=유재열(전 과천장막성전 교주),
2. 멸망자=오*호 전 연세대학교 교수 또는 청지기 교육원, (신천지를 멸망시켰다고 하여)
3. 구원자=이만희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주제의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 1)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의 성사과정(배멸구)이 과연 성경적인지,
- 2) 인용구절인 살전2:1-4이,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배도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인지,
- 3) 신천지가 주장하는 대로 "시대별 구원자가 배도"한 것이 맞는지,

☞ 특히 배도자라는 유*열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사자인지, 원래부터 사이비교주인지,

4) 위 실상의 인물들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이만희가 술 마시거나 여자 손등에 뽀뽀하는 사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든지,

"구원자치고 인상이 참 드럽게 생겼다"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단단히 미혹된 신천지인들은 "예수님도 초림때 포도주를 마셨다"거나,

이사야서 구절을 들이대며 "예수님의 풍채도 보잘 것 없으셨다" 따위의 대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집중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담소에서는 상담 초기부터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하다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신천지가 주장하는 배명구의 성경적 근거

데살로니가후서 2:1-4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신천지가 주장하는 배멸구의 성경적 근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1-4**의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할 때 성경을 바탕으로 왜곡한다는 것과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4:6)

특히 배멸구는 다른 사이비 이단에는 없고 신천지에만 있는 교리인데, 이 사실때문에 많은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 안에 배도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신천지식 비유풀이에 미혹된 신도들은 문맥을 잘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이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 [살전 1: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대한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 [살전 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 [살전 3:13]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잠깐~!

상담자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먼저 설득력있게 설
명해주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살후2:1-4은 앞서 쓴 편지인 데살로니
가전서에 기록된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번째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강림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 살전4:13-18을 먼저 읽어보고 나머지 구절도
읽어봅니다.

-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 [살전 1: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대한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 [살전 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 [살전 3:13]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강림)하실 때
의 구체적인 상황과, 성도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를 균형있게 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의 강림"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집중했습니
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몇몇은 일을 하
지 않고 재림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두번 째 편지인 후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설명을 했을 때 "성경을 사사
로이 풀지말라"는 신천지인의 항의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래 구절을 찾아서 보여
줍니다. 신천지인들에게는 말로 하는 것보다 성
경을 직접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살후3:11)

"우리가 들은즉...",

이는 바울이 전서를 보낸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1 Concerning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our being gathered to him,
we ask you, brothers,
2 not to become easily unsettled or alarmed by some prophecy, report or letter
supposed to have come from us, saying that the day of the Lord has already come.

정리하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발생한 신앙적, 도덕적 문제점)에서 벗어나 종말과 재림에 관
한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살후2:1-4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실상교육자료와 같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예언하기 위해 기록한 것
이라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매 시대마다 배도와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단 한 차례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기록된 살후2:1-4은 살전
4:13-18에 대한 답변 형식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앞에 보낸 살전 5:2에서 예수님의 재
림이 밤의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
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살후2:2) 잘못
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자
미혹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려는 애정어린 표현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영어성경(NIV)를 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습
니다. 주의 날이 has already come 즉 과거완료
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그 당시 주의 날
이 이미 임했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
을 알게 해줍니다.

창조의 **교재**가 되자.




1. 배도자, 멸망자, 구각각 누구인가? (실)

2. 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후 일곱 금 촛대 장막 성전을 세운 일곱 목자는 과연 재림 때 나타나 등불의 역사를 하는 길 예비 사자들인가? (계1:20)


3.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한 유재열, 그는 과연 성전에 예언된 배도자인가? (사24:5, 살후2:3)

4. 교권으로 언약의 장막 성전 (거룩한 곳)에 침노하여 그 단상에서 선 청지기 교육원 소속 목자들은 과연 약속하신 멸망자들인가? (마24:15, 단12:11)




5. 침노자들과 싸워서 지고 일곱 갈래로 흩어진 금촛대 장막의 일곱 별은 지위와 처소를 떠난 배도한 목자들인가? (유1:6, 신28:25~29, 계2:~3:)

6. 장막 성전 제직이 총사퇴한 것은 과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로 원수 앞에서 모든 불이 잘린 것인가? (사24:1~5, 애2:1~7)



7. 장막 성전을 침노한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목자는 과연 용의 일곱 머리인가? 또한 그들이 세운 열 장로는 과연 짐승에게 속한 열 뿔인가? (계13:, 단7:7)

8. 멸망자가 침노하여 거룩한 곳 단상에 선 것을 보고 시온산으로 피하여 나온 장막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증거할 증인들이 아니겠는가? (계15:2~5)



여기까지 설명해준 다음, 아래 신천지의 주장을 시계방향대로 보여주고 신천지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지켜보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라는 표현을 통해 종말에 관한 성도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딱 한번 오게 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2장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될 마지막 때에 한정된 예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과정을 정리해보면,

- 1)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는 후에,
- 2)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의 정체에 대하여 4절에서 설명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멸망의 아들의 정체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교리대로 하자면, 멸망자의 조건에 반드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者"라야 합니다.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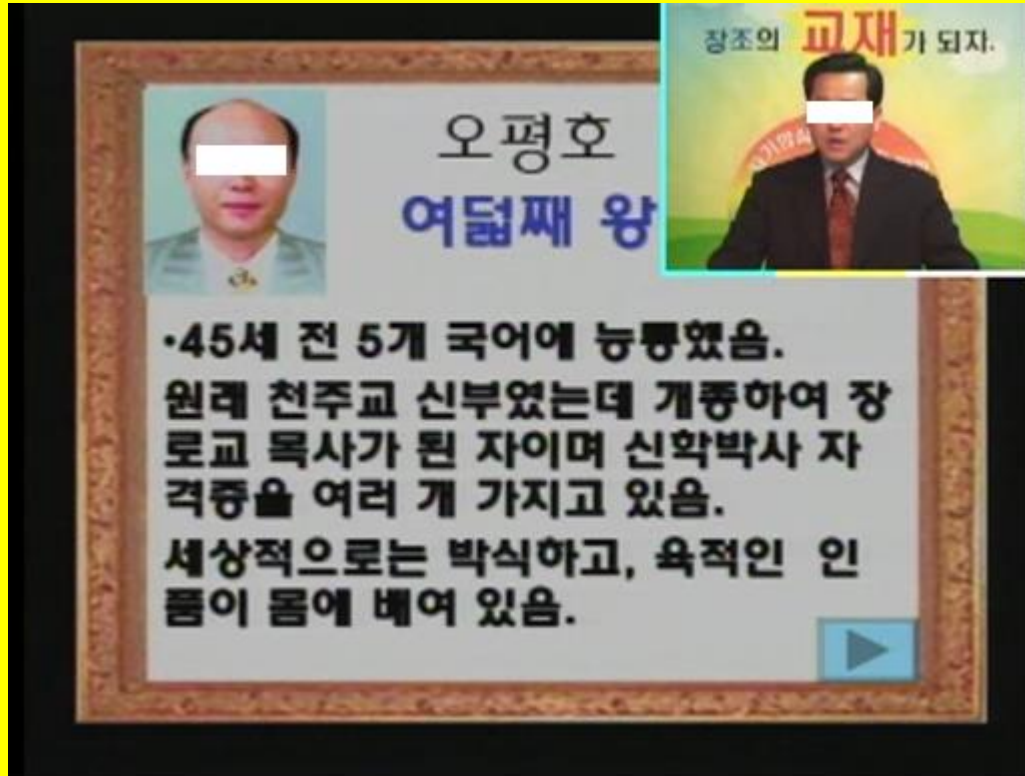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12-14)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3:4-5)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와 창세기를 보면 마귀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임 이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장하는 멸망자인 오*호 교수나 청지기 교육원은 결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역시 유*열의 과천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100% 신천지의 조작입니다.

따라서 살후2:1-4은 멸망자가 배도자를 멸망시키므로 이긴 자가 구원의 순리를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 앞에 있는 “곧”이라는 단어로 미루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기까지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으므로** “동심(動心)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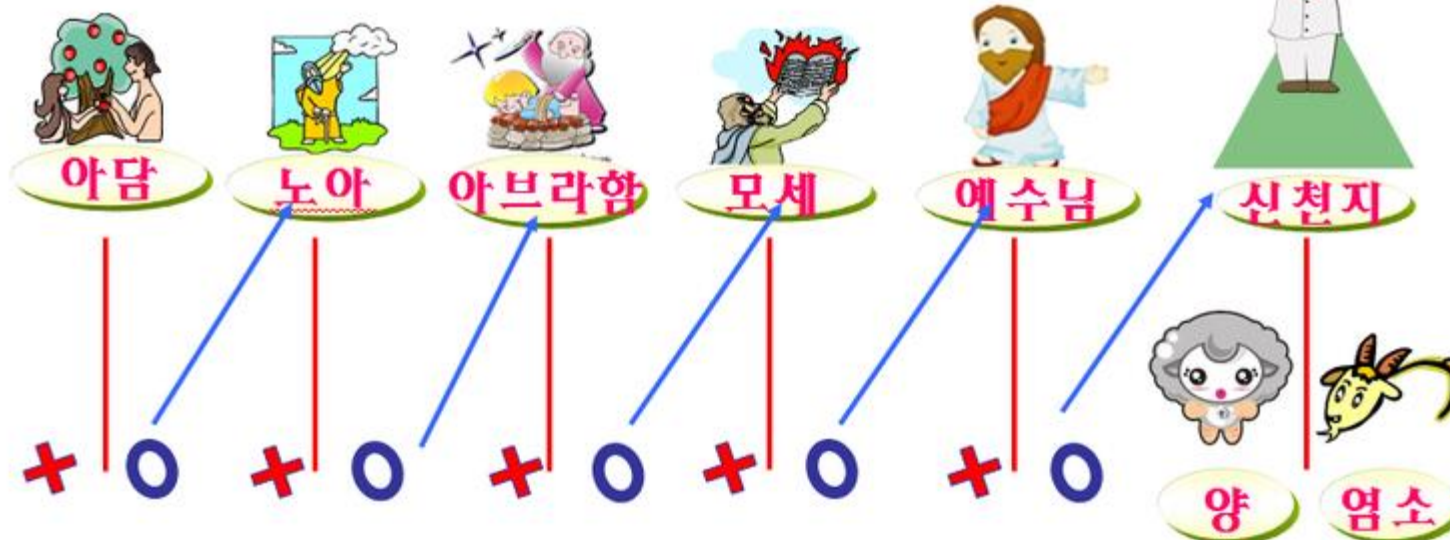
즉 마지막 때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멸망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지, 각 시대마다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임하는 광경을 예언하면서, 아래 구절과 같이 종말의 모습에 대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일개 인간의 배도와 멸망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후3:10)

2 살후 2:1~4의 바른 해석

특강[11]



신천지 교육자료

자.. 그럼

신천지가 주장하는 살전2:1-4이 시대별 배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아래 그림을 보여주면서 시대별 구원자가 배도한 것이 맞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1. 아담은 배도한 것이 아니다.

1.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순종한 것이지, 배도가 아니다.

아담이 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실리가 없다.

2. 배도의 뜻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배반하는 것이다.

3.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 마귀를 섬기고 의지하지 않았다.

4.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담이 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타락과 범죄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모든 시대에 있어왔다.

만약 위와 같은 신천지의 주장대로 아담이 배도한 것이 맞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대신 새로운 시대별 구원자를 세우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밀도 끝도 없이 아담이 배도했다고 한 뒤 그 다음에 노아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깊이 알지못하는 사람들을 착각시키기 위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최초의 인간이지,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야 인간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음과 연결하게 됩니다.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전 15:45-47)

2. 노아의 홍수는 배도 때문이 아니다.

1. 노아의 후손들이 배도하여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5-6)

2. 멸망이란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노아의 후손들은 멸망 당하지 않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신천지가 주장하는 노아의 배도는 더욱 황당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후손들이 배도하여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노아의 후손들 역시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구원자로 또는 시대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한낱 지도자일 뿐이고,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은,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인물들은 배도하지 않았다.

세레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본 것은,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상과 다른 모습으로 생각되어 신앙적 회의에 잠시 빠졌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한 것이지, 결코 배도한 것이 아니다.

4.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원망한 것이지, 배도하지 않았다.

그밖에 세레요한의 배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 주장은 세레요한 교리비판을 통해 설명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배도의 단어적 의미만 설명해줍니다.

설명을 하다가 가끔은 질문도 해봅니다.

"아담과 노아가 배도했다는 것은 모호한 관련구절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는 어떻게 배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십중팔구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신천지식 비유폴이에 폭 빠져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3

정리하기



철거되기전 구광명성전의 모습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

초막에서 양육받은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쳐 성전을 지었으며 성경 학개서 2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1966. 6. 1일에 착공하여 1966. 6. 24일에 완공하였다. 이 성전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장막성전이라 명명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성령의 역사로 삼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므로 장막성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구 성전이 협소하여 400명되는 장막 성전을 1969년말 착공하여 성도들과 피말아린 노력과 경성으로 1973년에 완공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의 언약을 교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배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장막성전은 이방교권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장막성전의 간판을 빼앗겨 되며 창립한지 14년만에 이방 교권자들의 간관아래 소속이 되었다. 이곳에서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직분을 대신 맡겨 이방과 손을 함께 한 것이 바로 배도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배도한 자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공원(서울랜드)이 세워졌다.

궤의 잃어진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장막성전이 이방간관에 속한 것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바알의 산당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더라는 말씀이 응한 곳이다 (렘32:31-35 렘19:4-5 겠:44:7-8)

첫 장막은 1966. 3. 14 창립하여 14년만인 1980. 9에 이방 교권자들에 의해 멸망 받았다.

(오른쪽 그림은 그 당시 초막을 복원한 그림)



유인구씨의 인도로 8명은 초막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선지사도들의 영들로부터 수개월간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며 말씀 양육은 유인구씨가 성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성경과 성경으로 연결지어 가르쳤으며, 성경해례에 다른 책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8명은 칼로 손목의 동맥과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어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였으며 흠된 피를 림계트병 2개에 담아 가지고 내려와서 사명자들을 세울때에 사명장 뒷면에 십자가를 그어 주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하므로 장막 성전은 14년만에 기독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언약이 없는 이방인을 단에 세워 직분을 대신 맡기게 되므로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 이방에 속하여 지은 건물,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난 곳(렘44:7-8 겠6:14)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삭중앙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바뀜) 현재는 과천 문원동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삭중앙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며 이들의 시작은 위의 설명 그대로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성경에 약속이 응한 것이다.

그런 다음 배멸구 상담의 마지막 코스...

이만희가 주장하는 이 시대의 배도자가 과연 유재열이 맞는지 알아봅니다.

이 주제의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 먼저 유재열이 당초부터 배도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구원자였다가 어떻게, 왜 배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자료를 보여줍니다.

≡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이 된 배경은 성별지의 내용과는 다르다.

오평호목사는 1975년 서울역에서 유 열씨와 만나게 되어 장막성전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장막성전에서는 목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로 유 열씨의 충실한 심복이 되었다. 이것은 모두 장막성전을 삼키기 위한 계략이었으며 성경대로 배짱줄을 자르지 않은 자(겔16:4)의 출현이다. 장막성전 창립 14년만인 1980년 5공화국 초기에 사이비종교 정화를 위해 국제 종교문제 연구소장 탁명환씨에게 지시가 있을 즈음 장막성전도 이단으로 분류되어 사이비 종교 정화라는 명분하에 언약이 없는 이방의 세력에 침노를 당한다. 이때 천주교의 신부로 있다가 개종하여 목사가 되었고 유 열씨는 충직한 심복이었던 오평호 목사의 주선으로 장로교회와 결탁하게 되었으며 장막성전의 부채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신도 50명을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장막성전은 장로교회 교권안에 파격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언약의 법을 배반한 장막성전을 이방의 손에 붙이게 되었다. 이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이고, 진실한 성읍이 미혹을 받아 포도주에 물이 섞여지는 창기의 행위이며 세상에 오염되는 배도의 길이었다(사1:20 계2:20).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 일이며, 이방에게 멸망당하는 일이며 (나1:11, 마24:15, 눅21:20)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되고 대적이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었던 선지자는 꼬리가 된 일이다(애1:5 산28).

수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중에서 신천지가 지금은 감추고 싶어하는 <종교세계관심사>나 <신천지발전사>에서 그 부분을 찾아 보여줍니다.

아마도 들어간지 얼마 안된 신천지인들은 처음 보는 자료일 것입니다.

· 1971 선생님. 첫장막의 불의를 보고 청도로 낙향하심

삼손과 오평호목사와의 첫 만남 (탁성환 주선)

· 다윗(유재열) → 밋세바(탁성환) 신7:1의 이방 족속(헛족속)



솔로몬(오평호): 666금 달란트 제조(왕상10:14)

° 1975 오평호 장막성전 입교(나움1:11, 겔44:7-8, 겔16:4에 기록된 자)

° 1976 백만봉의 사데교회(재창조교회) 출범

· 1979 선생님 상경하여서 사데 교회에 입교하심

· 1980.3.14 선생님과 오평호의 공생애 시작(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 야곱, 에서는 같은 날 태어났으며(80. 3. 14) 오평호는 에서처럼 털이 많음.

· 선생님 기름부음 받고(계1:17) 7사자에게 편지(계2: ~3:), 공생애 시작

· 오평호, 유재열을 쫓기 시작함(뱀이 아담하와를 꼬운 것처럼)

" 종님 큰일 났습니다. 장막성전이 사이비 종교로 분류되어 정화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쇠고랑차게 되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도 한 사람도 없고 정식 신학 공부한 사람도 없는데 큰일났습니다. 종님은 말씀도 최고요, 능력도 있으신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종님도 박사학위하나만 있으면 모든것이 해결될 텐데, 이 위기도 피할 겸 잠깐이 삼아 공부도 할 겸, 우선 이 단은 제가 지킬테니 학위를 받아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흔들고 흔들었다

· 1980. 9. 14 7천사 및 장막성전 재직 종사퇴(사24:1-), 성경이 인봉될

(사29:9-13, 계5:1-3)

장막성전 교단 바뀜(기독교 장로회 - 앓수르), 동산의 100일 양육터 초막이 열림

(애 2:6) - 마24:15, 사34:4, 벨후3:10, 계6:14, 렘22:8-9

① 선생님 책과 지팡이 받음(계10:1-11:1) - 9월의 사건

② 배도자 심판의 42달 시작(80. 9. 14-84. 3. 14)

또 왼쪽의 초기 자료(주: 1990년대 초기 신도들에게 나눠준 실상교육 유인물)에 의하면,

유재열의 배도가 "오평호 씨가 장막성전에 들어와 쫓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과 같이라는 친절한 괄호설명과 함께...

첫장막의 역사는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7명은 천사 직분으로, 1명은 제사장 직분으로 역사했다. 이들중 유인 구역과 유재열씨는 부자지간이다. 이것은 2,000년전 사가랴와 세레요한이 부자지간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레요한과 유재열의 역사도 약속의 말씀대로 출현된 것처럼 오늘날 나타난 첫장막의 7별과 7금촛대의 역사도 약속의 말씀대로 출현된 길예비 등불 역사이다 (계1:20).

— 31 —

〈신천지 발전사 31쪽〉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레요한과 같이 길예비 사자로 세운 유재열 씨가 하나님께 배도한 이유가 멸망자 오평호 교수의 꾀에 빠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천지식 교리대로라면 세레 요한 → 예수님,
유재열 → 이만희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세레요한과 유재열의 실상적인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은 보여줍니다.

세레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래와 같이 예언한 사람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40:3)

장막성전의 유 교주가 세례요한의 역할로 출현한 것이 맞다고 하려면,

최소한 그는 헤롯 왕 면전에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을 꾸짖었던 담대함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칭찬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는 치사하게 예비군 안가려고 돈 먹이다 걸리거나,

또 교주 柳씨는 지난 70년 4월 신도 차은희씨(60·당시 장로)에게 교회빛 때문에 수표가 부도나게 됐다고 속여 다 이어펀드 1·2개씩(시가 1백50만원)을 받아 1백만원에 팔아 유혹비로 써버렸고 71년 3월 신도 박종화씨(40·여) 소유인 서울용산구 청암동 소재 대지(당시 시가 1백50만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1백만원에 저당잡혀 유혹비로 써버리는 등 신도들로부터 2천여 만원을 뜯아

어년월의이다. 柳씨는 또 장막성전이 사비종교단체로 지목,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무마비조로 신도들로부터 1천여 만원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막성전이 있는 京畿도始興군파천면막제2리 3백여가구에서 지난 1·2월사이 20여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실도 밝혀내 한편 교주 柳씨의 재산 관계, 헌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帳幕聖殿 수사 확대

敎主와 준 예비군 중 대장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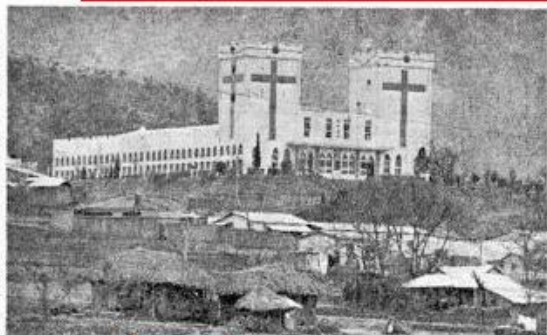
사이비종교단체인 장막성전(帳幕聖殿)에 대한 수사를 넓히고 있는 서울지검영남포지청 金旭男(金旭男)은 24일 서울종로구 옥인동에 비군 중대장 沈相泰씨(42)를 허위공문서 작성, 봉행사,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구속하고 교주 柳(柳)씨(26)가 2천여 만원을 신도들로부터 뜯어냈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沈씨는 교주 柳씨가 지난해 6월 11일과 17, 28, 29일, 9월 18, 19일에 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 한 것처럼 예비군 편성카드에 허위 기재했고 지난해 10월 10일 교묘를 중의한 교주 柳씨를 신화대학 졸업자라고 속여 상부에 보고, 예비군 중장으로 임명까지 한 혐의다.

新興宗教 단체 [帳幕聖殿教會 수사]

詐欺·추행·盜伐등 信徒告發따라



信徒 2千여명...集團居住하며 勞役

獻金받아 敎主遊興費로 탕진

脅迫·회유로 財産

“宗教自由는 規制 못해
犯法行爲만 依法制裁”
文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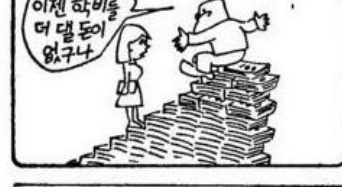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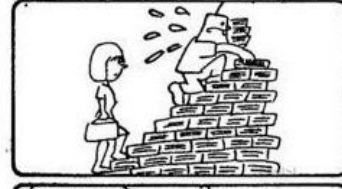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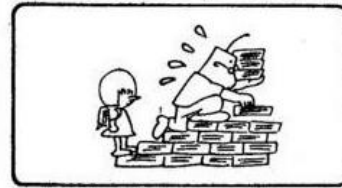
宗教단체의 登錄등으로
反社會的活動 規制해야
學界

[illegible]

【第3種郵便物認可】

東亞

고바우영감 (6508) 김성환



서술자는 6일 대한기를 치청장남
전사(張勝聖殿·京畿道西海郡
파친면파계2里)이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어 신도들의 재산
을 사수하고 특별 공판중
유예는 교주 柳烈(26)
부교주 김우 趙樹(41) 지사林
天(46) 비서朴滿濟(26)
등 4명을 사기 공판 무
효 판결했다. 처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구속하
고 재판된다는 혐의로 구속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서울인물들을 소개한다.
고려장부와 포진명부 세
개에 수록된 인물들 중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柳烈
은 지난 67년 3월 14일 대한
기록포 참관선정이라는 종
교단체를 모아서 2천명의
신도를 만들었다. 파친면파계 2
리로 집단이 구성되어 장과
선교회와 전부를 자신구획
(자기 2천만 명)을 신도로
의 원금과 노력으로 신축
했다.

柳烈은 지난 71년 8월 서
술 천재전 7회에 참관선정
서울시지회를 설립하면서 자
신이 부총이라고 신도崔權
漢(57)의 소유 가족을
(당시 시가 1만 10만원) 집이
근처였다. 돈을 약탈하여 이
단사합계에 넣었다고 하며
같은 수법으로 신도李모의
씨도 포도밭(시가 2천만
원),申모부의 논을 농부가

信徒財産詐取・暴行

帳幕聖殿教會教主등넷拘

로 찾다. 柳姓은 또 신도인
洪鍾孝(字는 忠貞)의 딸)
의 비문에서 柳姓이 이가
로 찾다 한 것으로 의신도를
바친 사람의 양모를 알 수
있어 그녀 정간 한 것이
나.

公務員보우너스
10월 17日支給

전날과 마찬가지로 양모

성전을 비롯, 동방교 천
국복음전도회, 여호와의 증
인들, 한류, 물물 담았

이것이 邪教의 實相이다

被害者の告發

「이것이 邪教의 實相이
다」는 주제로 열린 이
날 모임에서 기록교장막

최근 제용산을 중심으로한 사이비宗教에 대해 당국의 단속이
가해져 관련자들이 구속되고있는 가운데 新興宗教問題研究所(소
장 卓明煥)는 15일 오후 기록교회관대강당에서 사이비종교의 실
제내막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의 폭로대회를 가졌다.

먼 피해信者 각 1명씩
4명은 이들「似而非 宗
教」의 實相을 하나하나
예를들어 털어 놓았다.
이들은 假名으로 以而非
宗教의 反社會性 不道德
性을 설명하고 대이상 피
해자들이 늘어나지 않거
를 바랐다.

장막성전회 京畿도始
莫溪리에있는 기록교대한
장막성전에 입교하여 교주
유열(27)을 보라했던



李부인이 동방교의 사이비성을 폭로하고있다.

金양식씨(45)는 敎主에
게 3백80만원의 財産을
사취당했으며 敎主와 幹
部들은 신도들로부터 우
려난 헌금으로 고급승용
차를 굴리며 밤마다 호
텔등을 전전하여 방탕생
活을 즐기고 있다.

장막성전 信徒獻金으로호텔轉
東邦敎 나이어린信徒에行商
天國福音傳道會 “天國에가면 모두 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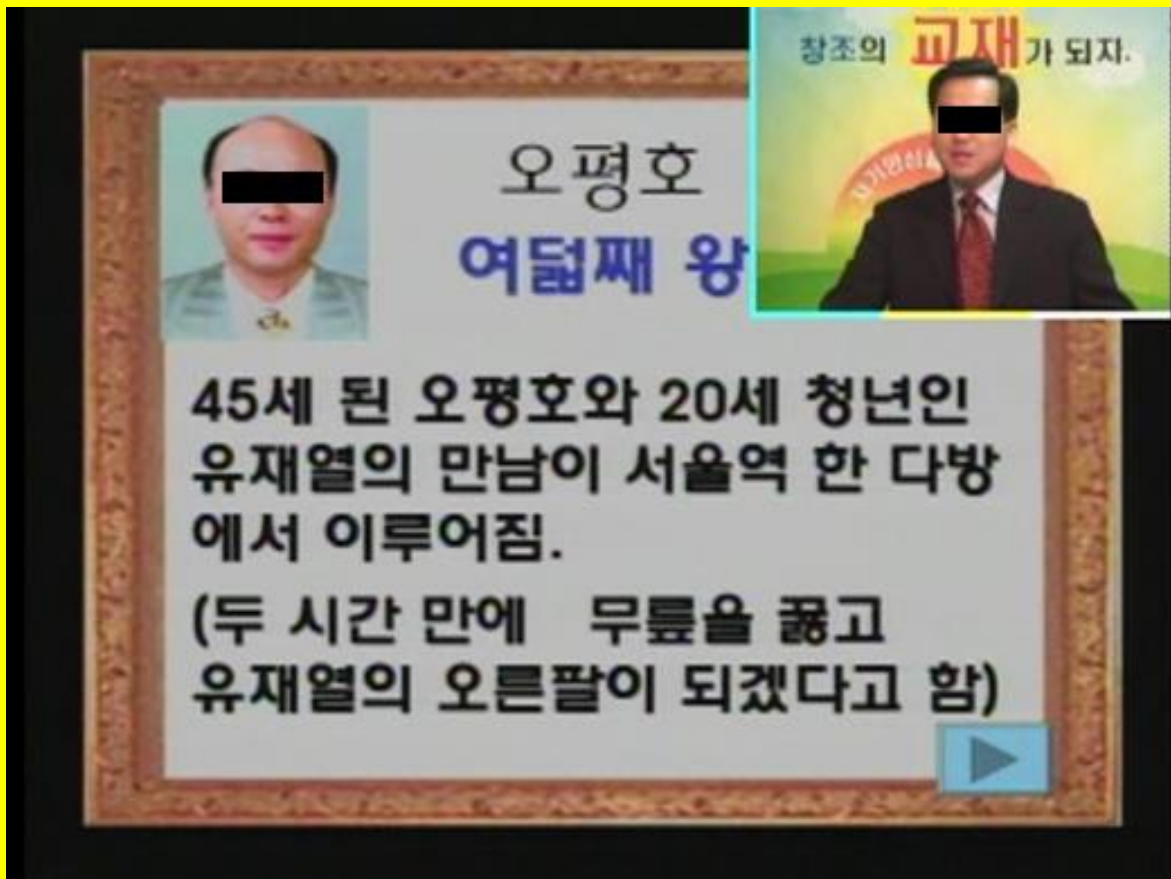
를잡혀 財産을 詐取했다
고 말했다.

동방교 66년 동
방교에 빠진 동
생들 구출하려다가 자신
도 말려들었다는 李경
숙부인(37)은 『敎主노
평음이 이땅에 재림한에
수라고하면서 이세상이 무
너지고 敎主가 왕이 될
때는 동방장까지도 동방
교인이 된다고 돈을 바치
도록했다』고 폭로했다.
또 불로 審判할때 살려
면「지성요」라는 피를 목
에둘러야 산다고 그피를
强買했으며 敎主가 하나
뿐이고 이세상의 모든 물

또 그 당시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이
것이 邪교의 실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과
천장막성전의 폐해를 보도했는지 관련자료를 보여
줍니다.

4

뽀나스



이제 마지막으로...

뽀너스로 아래 사진을 다시 보여주면서 신천지인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아래 김 모 전 교육장의 <실상강의 동영상>에 따르면, "45세 된 오평호와 20세 된 유재열의 만남"이라는 내용의 실상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동업자는 오평호 씨의 머리모양을 보고 나이차이가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생각없이 소셜을 썼던 것 같습니다.

NAVER 인물검색 오평호 검색

전체 인물명 뉴스 인터뷰 팬커뮤니티

인물명
오평호 대학교수, 목사
 출생 1947년 10월 24일
 소속 연세대학교 (교수)

뉴스

 강연하는 오평호 박사 뉴스사 사회 | 2007.04.13 (금) 오후 4:47
 강연하는 오평호 박사 【서울=뉴스1】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대토론회 '해외여형문화 이레도 좋은가'에서 오평호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 네이버뉴스 | 관련기사 보기

 "열적 비만 목상으로 뻐세요"... 연세대 오평호 교수 '생각하는 인간' 펴내 (화) 오후 3:35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오평호(60) 목사가 최근 '오늘의 목상' '산상복음 강해' '주옥같은 4권의 저서를 펴냈다. 연세대에서 강의한 원고와 전국 교회를 순회하러 / 네이버뉴스 | 관련기사 보기

1947년 생

1975. 09. 06 동아일보

7/8

서울지검영동지청 金銀男 檢사는 6일 대한기독교장로회성전(帳幕聖殿·京畿道시흥郡 파천면마제2里)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 신도들의 재산을 사취하고 폭행·공갈등 유해은(柳在烈)(26) 부교주 金銀道(41) 지사처 鍾大(46) 비서朴龍滿씨(26) 등 4명을 사기·공갈·무고·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한

고 경리장부와 교인명부세입세출현황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주 柳씨는 지난 67년 3월 14일 대한기독교장로회성전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 2천여명의 신도들을 모아 파천면마제2里로 집단이주시킨 뒤 장막성전교회전들과 자신의 주택(시가 2천만원)을 신도들의 현금과 노력으로 신축했다

柳씨는 지난 71년 8월 서울 천제천7街에 장막성전성우회(지회)를 전한하면서 전임비가 부족하다고 신도崔允濟씨(57)의 소유 가옥(당시 시가 1백 10만원)을 근처달 문물 안감아 집이 판사한테 넘겨졌으며, 집이 같은 수법으로 신도 李모씨의 포도밭(시가 2천만원), 申모부인의 논밭을 가

帳幕聖殿教會教主

信徒財産詐

1948년 생

그러나 네이버 자료에 의하면 오평호 씨는 1947년 생이고,

최근 싸이의 장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유재열은 불과 한 살 아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의 실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임을 설명해줍니다.

<마무리 멘트>



신천지의 배멸구교리만 제대로 깨뜨리면 많은 신천지인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배멸구교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에 등장했던 사이비 이단들의 교리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신천지만의 독창적인 교리이며, 유사 사이비들의 <시대별 구원자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에서 자세히 언급한 것 처럼,
살전 2:1-4 구절이 시대별 배도-멸망-구원의 순리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때에 단 한번 있게 될 "인류 종말의 예언"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신천지인들의 착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서 회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교리 4개를 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교리상담 10개 이상과, 핵폭탄 급 실상상담이 10개 이상 남아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